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베를린영화제가 한창이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영화제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영화제는 역시 미국의 아카데미영화제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카데미영화제와 다른 영화제의 가장 큰 차이는 수상작의 흥행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영화제들이 작품성과 예술성을 논하고 있는 동안에,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제정한 오스카상 수상작은 거의 흥행에 성공했거나 성공이 예상되는 작품 중에서 고른다.

즉, 대중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스카상이 폄하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문학상에서는 어떨까? 독일에서는 매년 750여 가지의 크고 작은 문학상이 시상되며 이를 통해 많은 작가들의 작품활동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국 방송을 통해 중계될 정도로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문학상은 없다.

조앤 롤링 등 '코리네 국제 도서상' 수상해

독자층의 노령화에 따른 출판시장의 축소를 염려한 독일서적상협회는 오스카상 시상식과 같은 화려한 쇼를 기획했다. '문학적 완성도' 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성공' 역시 거둔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상금 총액도 파격적으로 6억원 이상이다. 시상식 중간에 자료화면과 인기가수를 등장시켜 대중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냄으로써, 오스카상이 영화시장을 확대하듯, TV로 중계하는 화려한 잔치를 통해 독자층을 넓히겠다는 것이 그의 의도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은근히 존재하는 동서의 지역감정과 바이에른 지역의 유별남이 바로 그것. 결국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출판도시인 뮌헨이 속해 있는 바이에른주와 출판 재벌 베텔스만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24일 뮌헨에서 '코리네 국제 도서상' 시상식을 열었고, 구 동독의 전통적인 출판사인 아우프바우와 베를린 출판사 그리고 작센주가 중심이 돼 오는 3월 21일 라이프치히에서 '독일도서상' 시상식을 열기로 한 것이다. 독일서적상협회와 최대 스폰서 가운데 하나인 라

화려한 문학상 시상식으로 독자 관심 끈다

문학적 완성도와 대중적 성공 거둔 책에 시상해

이정모 | 유로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독일도서상 트로피. 쿤터 그라스가 소설 《넙치》를 모티프로 직접 디자인한 것이다.

벤스부르거 재단은 일단 양쪽 모두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분열의 결과는 자명했다. 헤닝 만켈, 체루야 살레브, 조엔 롤링, 로자 필드문서 등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작가

들이 수상한 코리네 국제 도서상은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에 시상될 '독일도서상'의 첫번째 수상자로는 '분단 독일 상황에서의 인간의 운명'을 다뤘은 크리스타 볼프에게 돌아가게 됐다.

일반 독자 관심 끈 '독일도서상'

지금까지는 일단 라이프치히의 '독일도서상'이 더 일반독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코리네 도서상이 대중소설(2), 교양도서(2), 일러스트 교양도서(1), 아동-청소년도서(1) 등을 심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데 반해, 독일도서상은 대상만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고 그 외 독일소설, 외국소설, 교양도서, 아동도서, 생활지침서, 신인상 등의 수상작 결정에는 일반독자들이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일어 소설' 분야가 따로 있어 독자들에게 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얻고 있는 쿤터 그라스의 새로운 작품 역시 그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상금이 있고, 상패 역시 코리네가 일반인에게는 웬지 낯선

로코코 양식의 도자기 인형이었는데 반해, 독일도서상의 경우에는 쿤터 그라스가 소설 《넙치》를 모티프로 직접 디자인한 '책 넙치' 조각이란 것 역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열돼버린 두 문학상 시상 '쇼'는 아무래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일서적상협회와 라벤스부르거 재단은 두 상이 통합되지 않으면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게 됐으니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의 문학 오스카상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문학상 시상식을 오스카상처럼 꾸민다고 해서, 책의 세계가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TV가 책을 소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연말이 되면 가요와 영화, 방송물 등을 대상으로 화려한 시상식을 열듯이 TV를 통해서 책과 독자를 이어주는 도서대상 '쇼'를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왕이면 작가뿐만 아니라 편집자와 디자이너, 제작자와 번역자들도 그 대상으로 해서 말이다. 진짜 오스카상처럼. ■